

2008년 11. 12월호 | 제 42호

# 독립정신



주시경 선생



사단법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 ■ 시로 읽는 독립정신

# 한 나라 말

주시경 (1876년 12월 22일 - 1914년 7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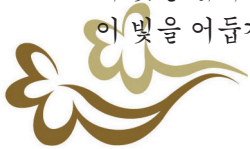


말은 사람과 사람의 뜻을 통하는 것이라.  
 한 말을 쓰는 사람과 사람끼리는 그 뜻을 통하여 살기를 서로 도와줌으로,  
 그 사람들이 절로 한 덩이가 되고, 그 덩이가 점점 늘어 큰 덩이를 이루나니,  
 사람의 제일 큰 덩이는 나라라.  
 그러 함으로 말은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리나니라.  
 이러하므로 나라마다 그 말을 힘쓰지 아니할 수 없는 바니라.

글은 말을 담는 그릇이니, 이지러짐이 없고 자리를 반듯하게 잡아  
 굳게 선 뒤에야 그 말을 잘 지키나니라.  
 글은 또한 말을 닦는 기계니,  
 기계를 먼저 닦은 뒤에야 말이 잘 닦아 지나니라.

그 말과 그 글은 그 나라에 요긴함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으나,  
 다스리지 아니하고 묵히면 덧거칠어지어 나라도 점점 내리어 가나니라.  
 말이 거칠면 그 말을 적는 글도 거칠어지고,  
 글이 거칠면 그 글로 쓰는 말도 거칠어지나니라.  
 말과 글이 거칠면 그 나라 사람의 뜻과 일이 다 거칠어지고,  
 말과 글이 다스리어지면 그 나라 사람의 뜻과 일도 다스리어지나니라.  
 이러하므로 나라를 나아가게 하고자 하면 나라 사람을 열어야 되고,  
 나라 사람을 열고자 하면 먼저 그 말과 글을 다스린 뒤에야 되나니라.

또, 그 나라 말과 그 나라 글은, 그 나라 곧 그 사람들이 무리진  
 덩이가 천연으로 이 땅덩이 위에 홀로 서는 나라가 됨의 뜻별한 빛이라.  
 이 빛을 밝히면 그 나라의 홀로 서는 일도 밝아지고,  
 이 빛을 어둡게 하면 그 나라의 홀로 서는 일도 어두어 가나니라.



출전 : <보성친목회보> 1910년 6월 10일 제 1호에 실린 주시경 선생의 글

해설 : 홍일선 (시인, 한국문학평화포럼 사무총장)

# 독립정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기관지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 받고자 합니다.



표지인물 | 주시경 선생

- 02 권두언\_ 2008년 가을 백범의 '나의 소원' | 김종철
- 04 이 달의 독립운동가\_ 한글에 바친 삶 한한샘 주시경 선생
- 11 이 달의 독립운동\_ 민족항일운동의 불씨 광주학생운동
- 15 역사 탐방\_ 조선왕조의 정궁 경복궁을 가다 | 홍진영
- 18 4기 답사 기행문 우수작\_ 타국에서 만난 우리의 역사 | 홍용희
- 25 다시보는 좋은 기사\_ 조상이 애국해서 후손은 고생하는 사회 | 유인경
- 29 독립정신 이모저모
- 31 임정서거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김학민  
 편집위원 | 강창일, 박노승, 반병률, 손정진, 산주백, 이두연, 이재승, 이찬희  
 편집·디자인 | 동방기획

## 2008년 가을 백범의 ‘나의 소원’



김종철 | 언론인

김구 선생께서 오늘 살아 돌아오신다면 <백범일지>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유명한 ‘나의 소원’을 이렇게 고쳐 쓰시지 않을까.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었던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었다. 문화의 힘이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민족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남과 북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단 한 걸음이라도 떼었는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난 것이 1949년 6월 26일이었으니 이제 60년이 가까워온다. 나는 그 한 해 전 4월 김규식 선생과 함께 38선을 넘어 남북협상에 참여하고 돌아왔다. 나의 소원은 ‘대한 독립’이고 겨레의 통일이었기에 목숨을 걸고 북으로 갔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은 지 한 해만에 남북 간에 전쟁이 터져 수많은 동포들이 목숨을 잃었다. 통

탄스러운 골육상쟁이 끝나고 나서도 남과 북은 반 세기가 넘도록 대립과 갈등을 되풀이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라 가장 추한 나라가 된 것 아닌가?

북녘 동포들은 올해 풍년이 들었어도 하루 세 끼를 찾아 먹을 수 없다고 한다. 남녘 창고들에는 썩어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쌀이 가득 차 있다는데, 왜 그 가엾은 동포들에게 당장 몇 천 톤이라도 실어 보내지 않는가?

남쪽 사람들은 아주 소수 말고는 양식 걱정은 안 한다고 한다. 부자들은 몇 천만 원을 들여 몸치장을 하면서 북쪽 어린이들의 그 처량한 눈빛을 잠깐이라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인가.

오늘 내가 되살아 돌아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열 몇 번째로 부강한 나라이지만, ‘높은 문화의 힘’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구나. 나는 일찍이 ‘나의 소원’에 이렇게 썼다. “인류가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지금 우리 겨레를 보면 남이고 북이고

지도자란 사람들이 인의도 자비도 사랑도 부족하다.

나는 경제적으로 월등히 앞선 남쪽을 보면서 더 역장이 무너진다. 대통령부터 여당 간부들까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라고 외치더니 요즘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를 맞아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한 마디도 않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많은 국민들이 불안한 물가, 폭락하는 주가, 치솟는 환율 때문에 낭떠러지로 밀려가는데도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조선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에만 눈이 벌개져 있는 자들은 도대체 어느 민족의 자손인가? 일제 통치가 조선 근대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느니, 위안부들 중에는 돈 벌려고 ‘정신대’로 나간 여성들이 많았다느니,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 되었다느니, 이 무슨 낮도깨비들의 발호란 말인가.

나는 안두희의 총탄을 맞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똑똑히 보았다. 일제에 빌붙어 독립지사들을 잡아 고문하고 살육하던 자들이 이승만 정부에서 다시 ‘출세’ 하여 호의호식하는 것을... ‘관동군’이라는 일제의 침략군에 무기를 바치는가 하면 조선의 젊은이들을 ‘친황 폐하의 성전’에 충알받이로 나가라고 충동질하던 자들이 해방 후에도 신문사를 지배하면서 친일파의 방패 노릇 하던 것을... 그들 또는 이승만의 심복이던 자의 후

예라는 사람들이 지금도 ‘조중동’이라는 거대언론을 거느리고 있다니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질 리가 있는가.

나는 우리의 힘으로, 교육의 힘으로 아름다운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오늘의 교육은 어떠한가? 돈이나 권세가 있는 집의 자식들만 큰 돈 드는 사교육을 받아 ‘좋은 학교’ 들어가서 평생 남을 누르고 살면서 으스스하게 하는 것이 교육인가? 교육은 사랑과 협력과 평화적 공존을 가르치는 일이다. 겨레와 벗과 가난한 외국인을 밟고 서서 제 이익만 챙기도록 부추기는 것은 반인간적 행위일 뿐이다.

‘나의 소원’의 한 대목을 되풀이하겠다.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덕을 입히려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게, 이웃에게, 동포에게 주는 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이다.”

나는 동포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한다. 민족의 역사를 바로 적고 조상의 자랑스러운 문화를 살리면서 남과 북이 인의와 자비와 사랑으로 만나야 한다. 특히 남쪽의 권력자들에게 당부한다. 멸시와 오만으로 북의 동포를 대하지 말라.

이제 내가 있던 저 세상으로 돌아가련다. 다음에 다시 오면, 인의와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저 흉한 철조망을 걷어버려서 온 겨레가 ‘문화의 힘’을 누리는 아름다운 나라를 보기를 소망한다. ☉

## 한글에 바친 삶 한힌샘 주시경 선생



▲ 1921년 조선어학회 회원들

오늘날 나라의 바탕을 보존하기에 가장 중요한 자기 나라의 말과 글을 이 지경을 만들고 도외시한다면, 나라의 바탕은 날로 쇠퇴할 것이요 나라의 바탕이 날로 쇠퇴하면, 그 미치는 바 영향은 측량할 수 없이 되어 나라 형세를 회복할 가망이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말과 글을 강구하여 이것을 고치고 바로잡아, 장려하는 것이 오늘의 시급히 해야 할 일이다.

- 선생의 저작 <국어문전음학(國語文典音學, 1908)> 중에서

1876년 개항 이후 우리나라의 역사적 과제는 반(反)외세 자주화와 반(反)봉건 근대화의 문제였다. 외세의 침략과 수탈에 대항하여 민족 자주권을 사수하면서, 사회적 개혁을 단행하여 근대 민족국가로 거듭나려는 노력은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졌다. 왕실은 왕실 나름대로의 근대화 조치를 강구하였다. 또 보수적 양반유생들은 위정척사사

상으로 무장하여 그들 나름대로 조국을 수호하여 갔다. 선각적 양반과 신진 관료, 그리고 새롭게 성장한 시민층은 개화·개혁사상에 입각하여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민중들 또한 사회적 경제적 변혁을 요구하며 밑으로부터 혁명적인 근대화 운동을 전개하여 갔다. 따라서 극소수의 부류를 제외하고는 조국 근대화와 자주화의 노력을

포기한 적은 없었다. 다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 나아가 근대화와 자주화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혹은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에 대한 차이는 있었다. 이 같은 경증완급의 차이를 제외한다면, 개항 이후의 시기는 가히 전방위적 근대화 운동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 “나라의 바탕을 굳세게 하는 길은 나라의 말과 글에 있어”

주시경 선생은 이러한 시기에 태어났다. 그리고 이 시기 우리 민족이 당면한 민족적 사회적 과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다. ‘힘이 있는 자는 힘으로, 돈이 있는 자는 돈으로, 머리가 있는 자는 머리로, 지식이 있는 자는 지식으로 노력하듯이, 선생은 한글 연구와 보급으로 역사적 과제 해결에 헌신하였다.

당시 외세 침략으로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던 시기에 국어, 국사 그리고 민족 문화는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담보물이었다. 민족은 공통의 언어 집단이고,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집단이며, 독자적 문화 집단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선생은 “자기 나라를 보존하며 자기 나라를 일으키는 길은 나라의 바탕을 굳세게 하는 데 있고, 나라의 바탕을 굳세게 하는 길은 자기 나라의 말과 글을 존중하여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어문 민족주의적 사고를 견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망의 위기가 현재화되어 가면서 그에 대한 연구와 보급은 민족 정체성

의 확립을 뛰어넘어, 그를 통해 민족 보존·수호, 발전을 지향하는 어문 민족주의로까지 승화되어 갔다. 그러한 어문 민족주의자 가운데 가장 우뚝 선 사람이 바로 선생이었다.

선생은 개항되던 해인 1876년 음력 11월 7일(양력 12월 22일) 황해도 봉산군 쌍산면 천산리 무릉골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학원(鶴苑), 모친은 연안이씨로 선생은 이들 사이의 4남 2녀 가운데 둘째 아들이었다. 본관은 상주(尙州), 아명은 상호, 호는 한헌샘·한훤메·백천(白泉)·태백산(太白山) 등이 있다.

선생은 조선 중기 풍기군수로서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을 세운 주세붕의 13대손이었다. 부친 또한 학문이 있어 구암집을 내기도 한 시골 선비였다. 그러나 가정 형편은 매우 어려웠다. 선생이 어렸을 적에는 “어머니와 누나가 산나물과 도라지를 캐어다가 죽을 쑤어 형제들의 나이 차례로 나누어 먹으며 가까스로 목숨을 이어갈” 정도였다. 이같은 생활에서 벗어나 선생이 본격적으로 학문을 익히게 된 것은 중부(仲父) 학만(鶴萬)씨의 양자가 되어 1887년 상경하면서부터이다. 물론 향리에서도 부친과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우기는 하였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한학을 익히게 된 것이다.

선생은 남대문 시장에서 객주업으로 재산을 모은 양부 후원으로 이회종 진사서당에서 약 4년간 한학을 배우며 인격을 도야하였다. 이때 한학을 배우면서 선생은 한문에 대한 희의를 느끼고 우리 말과 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 이 달의 독립 운동가

서당에서 한문글을 배울 때 선생이 한문을 한문음대로 한 번 읽어 주는데, 이때는 아이들은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해서 멍하니 그대로 앉아 있다가 다음에 선생이 우리말로 새겨주어야 비로소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이같이 우리말로 하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왜 하필 어려운 한문음을, 그것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을 왜 헛되

이 되풀이하는가 하고 의심을 품게 되었고, 또 우리글이 있는데 왜 이토록 어려운 한문만을 배워야 하며, 우리말을 쉽게 적을 수 있는 우리글은 왜 쓰지 않나 하고 골똘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한글을 연구하게 된 동기다.

이어 선생은 1894년 8월 신학문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배재학당에 입학하게 되었다. 이는 선생이 밑으로부터의 근대화 운동인 동학농민전쟁을 목격하고, 또 청일전쟁이 발생하여 한반도가 청일 양국 세력의 각축장이 된 현장을 보면서 조국 근대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듬해 7월 갑오내각이 해운 근대화의 일환으로 인천에 관립 이운학교(利運學校)를 설립하여 관비생을 모집하자 선생이 여기에 입학한 것도 그 같은 인식의 결과로 보인다. 그리하여



▲ 한한샘 주시경 선생

선생은 1896년 2월 5일 이운학교를 졸업하고 마산항지사장으로 임명됐지만, 곧 이어 2월 11일 아관파천으로 갑오내각이 붕괴됨에 따라 사퇴하게 되었다.

### 서재필과의 만남

이운사 사퇴 후 선생은 그해 4월 배재학당의 만국지지역사특별과에 재입학하였다. 여기에서 선생은 서재필을 만나게 된

다. 1895년 12월 26일 갑오내각의 주선으로 귀국한 서재필은 이때 독립신문의 창간을 준비하면서 배재학당의 만국지지역 강사로 출강하고 있었다. 때문에 둘의 만남은 필연적이지아 운명적이었다. 그것은 서재필이 새로 창간할 독립신문을 일반 민중과 부녀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국문전용으로 발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생은 서재필의 귀국 이전부터 국문법을 연구하던 당시 유일무이한 국문전용론자였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 서재필은 갑신정변 시기의 혁명적 개혁론자가 아니라 점진적 계몽운동가로 변신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국어 연구와 보급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민중을 계몽하려던 선생의 어문(語文) 민족주의적 관점과도 닿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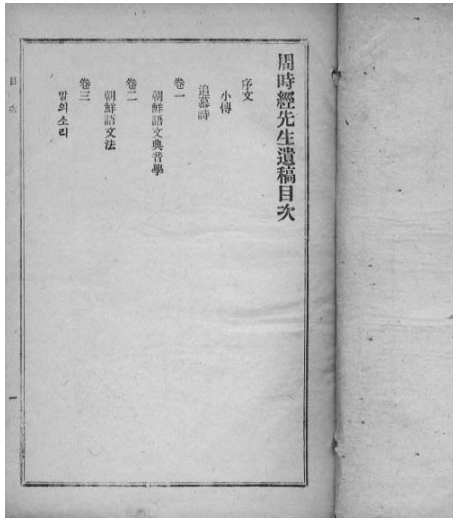


따라서 선생과 서재필은 상호 필요성으로, 그리고 근대 민족운동의 관점에서도 공통점을 지녀 동지적 결합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관계로 선생은 서재필이 1896년 4월 7일 독립신문을 창간하자 회계 사무 겸 교보원으로 임명되었다. 그후 독립신문사 총무 겸 교보원으로, 국문담당 조필

(助筆)로 서재필의 국민 계몽운동을 지원하면서 국문전용·국문 띄어쓰기, 쉬운 국어쓰기를 실천하여 갔다. 그리하여 서재필과 선생의 국민 계몽적 논설은 일반 민중과 부녀자층에도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었다. 특히 서재필의 근대 인권과 민권 사상, 그리고 남녀평등 사상 등은 일반 민중의 의식과 사상을 변혁시켜 이들이 이후 근대 민족운동의 주력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선생은 그해 5월 <국문동식회(國文同式會)>를 독립신문사 내에 조직하여 한글 연구·정리와 보급의 단초를 열었다. 이회는 독립신문을 제작에 있어 맞춤법을 정리 통일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선생의 한글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음은 물론 1907년 1월 훈동(薰洞) 의학교(醫學校) 안에 설립된 지석영(池錫永) 중심의 국문연구회, 역시 그해 7월 학부 안에 설치된 국문연구



▲ 주시경 선생의 유고 - 조선어문법

소, 그리고 1908년 8월 선생이 국어강습회 졸업생들과 함께 조직한 국문연구회로 그 전통이 이어졌다. 나아가 일제시기 선생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1921년 12월 조직한 조선어연구회와 1931년 1월 확대 개편된 조선어학회, 해방 이후 한글학회로 계승되면서 한글 연구·정리와 보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선생의 국민 계몽운동은 독립신문의 발행과 한글 연구에만 그치지 않았다. 1896년 11월 서재필의 지도로 양홍묵·신홍우·이승만 등과 함께 배재학당의 학생과 교직원들을 중심으로 협성회(協成會)를 조직하였다. 이 회에서 선생은 처음 전적(典籍) 겸 <협성회회보> 저술위원으로, 후에는 제의라는 간부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민 계몽운동에 앞장섰다. 그리하여 협성회 주최의 토론회와 회보 발행을 통해 봉건적 악습과 적폐를 타파하고 일반 민중을 계몽하여 근대적 사회 개혁을 이루어 갈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 독립협회의 강제 해산과 은신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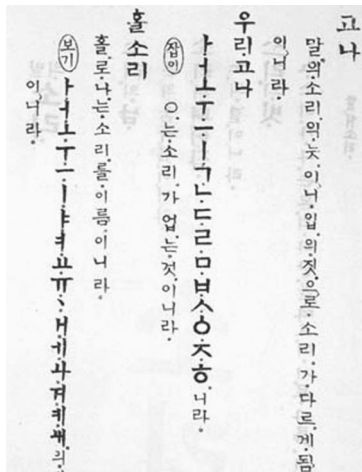
이 시기 최대의 민족운동 단체로 1896년 7월 독립협회가 조직되자 선생은 여기에도 동참하여 활동하였다. 그것은 이 회를 결성하고 실제적으로

이 달 의 독 립 운 동 가

주도한 서재필과 선생이 관계로 보아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듬해 12월에는 약관의 나이로 일약 독립협회 지도부의 일원인 위원으로 선출되어 활약하게 되었다. 그러나 1898년 5월 서재필이 제국주의 열강의 사주를 받은 수구파 정권의 탄압으로 재차 도미하고, 11월에는 이상재·정교·남궁억 등 독립

협회의 간부 17명이 '현의 6조'의 실행을 요구하다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되자 일반 민중들과 독립협회 회원들은 종로 네거리에서 자발적으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반정부·반침략 투쟁을 펼쳤다. 이들은 피검된 독립협회 간부의 석방과 '현의 6조'의 조속한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외세의 침략과 수구파 정권의 실정을 규탄한 것이다. 이 때 선생은 독립협회의 청년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양기탁·이동녕 등과 함께 만민공동회운동을 이끌어 갔다. 그러다가 그해 12월 수구파 정부의 기습적인 무력 탄압으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운동이 강제 해산되고, 그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가 시작됨에 따라 선생은 부득이 향리로 피신하여 은신하게 되었다.

향리에 은신하면서도 선생은 한글 연구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때 그간 5년 동안의 연구를 정리한 <국어문법>을 완성하였다. 이듬해 다



▲ 주시경 선생의 말의 소리중 순우리말의 예

연과학의 이치를 배웠고, 수진동의 흥화학교 양지과(量地科)에 입학해서는 측량술과 도해법을 익혔다. 그리고 한성외국어 학교에서 일어, 청국어 등을 청강하고, 습득한 지식을 응용하면서 한글 연구를 심화시켜 갔다.

하지만 이 시기 '한일 의정서' 체결, '을사조약' 체결 등 조국의 운명은 점점 망국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 시기 선생의 노력은 크게 네 방향으로 경주되었다.

첫째, 한글 연구 성과의 간행과 보급 활동을 통한 민족의식 고취활동이다. 선생은 1906년 학생용 교재인 <대한국어문법>을 발간, 보급하였다. 이 책은 우리말과 글을 바르게 인식하기 위한 글자꼴과 맞춤법의 본보기 규정 및 음운 이치를 논술한 것이다. 그리고 1908년에 음성론과 소리갈 등의 국어 문법에 관한 연구서인 <국어문전음학>

시 상경한 선생은 이후 '을사조약'이 체결되기까지 5년여 동안 한글의 연구와 교육, 그리고 국문 연구의 과학화를 위한 개인 학습에 온 힘을 쏟았다.

우리말 연구로 민족의식 고취

정동에 와 있던 미국 감리교의 의료선교사인 스크랜튼으로부터는 영어와 자

을 간행하였다. 나아가 1909년 2월에 초등 국어 교과서인 <국문초학>을, 1910년 4월에 <국어문법>을 상동 박문서관에서 발간, 보급함으로써 민족 의식을 고취 국권회복운동의 역량을 키워 갔다.

둘째, 국문연구기관의 조직과 참여를 통한 정열적인 연구 활동이다. 선생은 이준의 추천으로 지식영이 설립한 국문연구회에 참여하여 한글 연구에 종사하였다. 이와 함께 선생은 세종대 언문청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국문연구 기관 설치를 주장하여 이를 관철한 뒤, 거기에 참여하여 왕성한 연구활동을 벌였다. 즉 선생의 상소로 1907년 7월 학부 안에 국문연구소가 설치되자, 그 연구위원으로 선임되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국문의 연원, 자체와 발음의 연혁, 철자법 등 11개 항목의 <국문연구안>을 냈고, 이를 토대로 <국문연구의정안>을 만들어 내각에 제출하는 등 뛰어난 연구 성과를 냈다. 그리고 1908년 8월 선생은 상동 청년학원의 국어강습소 졸업생 및 유지들과 함께 국문연구회를 발족시켰다. 이는 한글연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거기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국망 이후까지 내다보면서 결성한 민간 국문연구 단체였다.

셋째, 국어·지리·역사의 교육을 통한 민족 정체성의 확립 활동이다. 선생은 1907년부터 상동 청년학원에 국어강습소를 설립하여 청소년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다. 이밖에도 선생은 공옥·이화·숙명·진명·기호·협성·보성·배재·중앙·경신 등 20여 개의 각 급 학교에서 국어는 물론 우리 역사와 지리 등을 강의하였다. 그리하여 ‘앓을

자리가 따뜻해질 겨를이 없을 만큼’ 분주하게 강의할 책을 큰 보자기에 싸서 이 학교 저 학교로 다녔기 때문에, 선생은 ‘주보따리’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한다. 이렇게 선생은 청소년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찾아다니며 우리말과 글, 그리고 역사와 지리 등을 교육하여 민족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자주 독립정신을 일깨워 주었다.

넷째, 계몽운동 단체 참여와 언론을 통한 대중 계몽운동이다. 선생은 1906년부터 약 1년간 <가정잡지(家庭雜誌)>의 편집인으로 활약하면서 논설을 통해 여성 계몽 활동을 벌였다. 선생을 활동 범위는 계몽운동 단체로도 이어져 서우학회와 대한협회의 활동에도 미쳤다. 그리하여 서우학회의 협찬원과 대한협회의 교육위원으로서 이들 단체의 기관지 발행과 학교 설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그리고 <서우>·<대한협회월보>를 비롯한 계몽 잡지에 각종의 논설을 발표하면서 대중의 민족적 각성을 촉구하여 갔다.

### 죽기 직전까지 우리 말 보급에 매진한 ‘주보따리’

이러한 여러 방면에 걸친 선생을 비롯한 계몽운동가들의 노력과 전민족적인 의병투쟁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1910년 8월 일제의 완전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이후 일제는 영구한 식민지 지배를 획책하며 민족말살정책을 자행하였는데, 그 표적은 국어와 국사였다. 따라서 제도적인 국사 교육은 봉쇄되고 국어 교육은 제한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일본역사와 일본어가 차지하게 되었다.

이 달 의 독 립 운 동 가

이렇게 되자 선생은 1911년부터 박동의 보성중학교에 조선어강습원을 열어 후학을 양성하였고, 그 밖에도 여러 학교에 출강하면서 국어 교육을 민족 의식을 고취하여 갔다. 이때의 상황을 제자 가운데 한 분인 최현배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눈물을 머금은 '주보따리'는 언제나 동대문 연지동에서 서대문 정동으로, 정동에서 박동으로, 박동에서 동관으로 돌아다녔다. 스승은 교단에서 시때, 언제든지 용사가 전장에 다다른 것과 같은 태도로써 참되게, 정성스럽게, 뜨겁게, 두 눈을 부릅뜨고 학생을 응시하고, 거품을 날리면서 강설을 하셨다. 스승의 교수는 말 가운데 겨레의 혼이 들었고, 또 말 밖에도 나라의 생각이 넘치었다.

이는 나라를 잃었는데, 언어까지 잃게 되면 민족 정체성을 상실함은 물론 영원히 독립을 쟁취할

수 없게 될 것을 자각한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선생은 더욱더 한글의 연구와 교육에 매진함으로써 독립 쟁취의 기초를 닦아 갔다. 경술국치 이후에도 <국어사전> 편찬 작업에 착수하고, 또 1914년에 <말의 소리>를 간행하여 국어음운학의 과학적 기초를 확립한 것 등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던 중 몸도 돌보지 않는 한글 연구와 강의로 말미암아 선생은, 1914년 7월 27일 서울 수창동 자택에서 38세의 나이로 급서하고 말았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80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

※ 이 글은 국가보훈처의 글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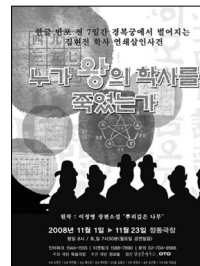
## ‘누가 왕의 학사를 죽였는가’

연극 <누가 왕의 학사를 죽였는가>는 소설 <뿌리깊은 나무>를 원작으로 하였다. 연출에는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등 연극적 상상에 기댄 스타일리쉬한 박승걸씨가 맡았으며, 제작사인 극단 독립극장 대표이자 본회 이사인 원영애씨가 1인 3역으로 연기한다.

<누가 왕의 학사를 죽였는가>는 세종시대, 훈민정음 반포 전 7일간 경복궁에서 벌어지는 집현전 학사 연쇄 살인사건을 다룬다. 흠잡을 데 없이 치밀한 복선과 허탈할 정도로 예상을 배반하는 반전은 연극적 재구성을 통하여 더욱더 긴장감있고 박진감 있게 그려진다.

공연 장소는 정동극장-공연날짜 11월 1일(토)부터 11월 23일(일)까지이다. (학생은 30% 할인)

■ 문의 전화 02) 704-9566



## 민족항일운동의 불씨 광주학생운동



▲ 광주학생 운동 당시 진행되는 여학생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일어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광주학생운동은 일본제국주의의 지배에 저항하여 일어났던 대표적인 민족운동 가운데 하나였으며 그 규모나 영향, 역사적 의의에서 3.1운동과 나란히 하는 항일독립운동이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단순히 광주 지역의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이 충돌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 3.1운동을 계기로 항일독립운동의 중심이 된 학생, 농민, 노동자 등 민중세력들은 일제의 기만적인 문화정책과 폭압 속에서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맹휴투쟁, 소작쟁의, 파업을 감행하면서 항일의식과 조직력을 키워 나갔다. 이와 같은 민중의 항일운동 역량이 성숙되어 학생독립운동이 촉발되었던 것이다.

### 일본 중학생의 만행이 운동의 불씨가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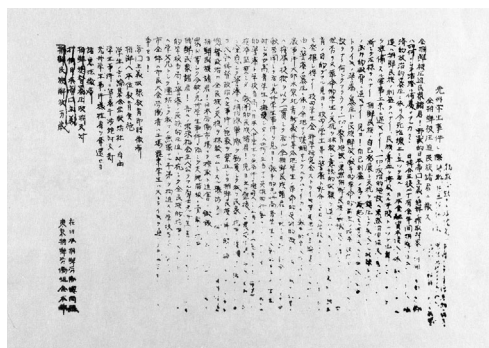
1929년 10월 31일 나주역에 도착한 광주발 통학열차에서 내린 일본인 중학생들은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인 박기옥·암성금자·이광춘의 땀기머리를 잡아당기며 희롱하였다. 이 광경을 목격한 박기옥의 사촌동생 박준채는 분노하여 항의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난투극이 벌어졌다. 박준채는 후에 일본인 중학생 후쿠다가 “조센징”이라는 인종 비하 발언을 하는 무례함에 격분했다고 회상하였다. 이를 본 일본 경찰들이 일본인 학생 편을 들고, 광주고보 학생들은 차별에 대해 집단항의 하였다. 조선인 학생들은 이민 자격으로 조선에 와서 지주행세를 하는 일본인에 대해 평소에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의 자식들까지 무례하게 굴자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

이 달 의 독 립 운 동

**타오르는 분노가 학생운동으로 이어지고**

1929년 11월 3일 (일요일)은 일본에게는 메이지유신의 상징인 메이지 천황의 탄생을 축하하는 명치절(明治節)이었지만, 조선인들에게는 음력 10월 3일 즉, 단군의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는 개천절이었다. 한국인의 시조를 기념하는 날에 일본 천황의 생일을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불러서 축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조선인 학생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하교길에 일본인 학생들과의 충돌사건을 불공정하게 보도한 광주일보에 몰려가서 항의할 정도로 그들의 반일감정은 폭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광주고등보통학교의 조선인 학생이 광주중학교의 일본인 학생들에게 테러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폭력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졸업생인 장재성(광주청년동맹)의 설득이 아니었다면 한일 학생들의 충돌은 더 심하게 번졌을 것이다. 한편 장재성 등은 일제에 대항할 자세한 행동방향을 제시한다.

1. 우리의 투쟁 대상은 광주중학생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이니 투쟁 방향을 일제로 돌릴 것.
2. 광주중학생에 대한 적개심과 투쟁을 일제에 대한 증오와 독립투쟁으로 바꿀 것.
3. 광주중학생과 대치중인 광주고보생을 해산시키지 말고 광주고보로 집합시켜 적개심에 불타는 학생들을 식민지 강압정책 반대 시위운동으로 돌릴 것.
4. 장재성이 시위운동을 직접 지도할 것.
5. 우리는 앞으로 다른 동지들과 연락하여 다음 투쟁을 준비하고 계획할 것.



▲ 광주 학생운동 당시의 격문

그리하여 장재성의 주도로 학생들은 광주농고 학생들과 함께 광주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용감히 적(일제)을 물리치자는 내용의 행진가를 부르는 가두시위를 하였다. 일제는 항일시위에 가담한 70여 명의 조선인 학생 중 60여 명을 구속, 검사국으로 송치하는 탄압했고 심지어는 개인의원인 태양의원에서 치료받던 학생들을 도립병원장이 치료할 가치도 없다면서 비하하는 망언을 하여 공분을 샀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에서도 일제의 학생운동 탄압과 차별을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할 정도였다.

장재성은 광주학생들을 설득하는 유인물을 작성했으며, 인쇄를 맡은 오쾌일에 의해서 등사판을 이용하여 박기석의 집에서 약 1,000장을 인쇄하였다. 그리고 1929년 11월 12일 오전 8시 경 오쾌일은 광주고보와 광주농고의 학생들을 통해서 유인물을 배포한다. 당시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의 여학생들도 교

정에서 시위에 가담하였으며, 광주고보, 광주농고, 광주여자고보 학생들은 동맹휴학으로 일제에 대항하였다. 일제는 250여 명에 가까운 학생들을 검거했으며, 사회운동단체 간부들도 검거당했다. 학교 측도 무기정학, 퇴학으로 광주학생운동 가담자들을 탄압했다. 당시 일제는 언론통제를 통해 광주에서의 학생운동이 전국에 번져서 전국 규모의 항일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어느 여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집에 못 가게 한다는 헛소문이 돌게 해서 조선인들의 항일의식만 부채질할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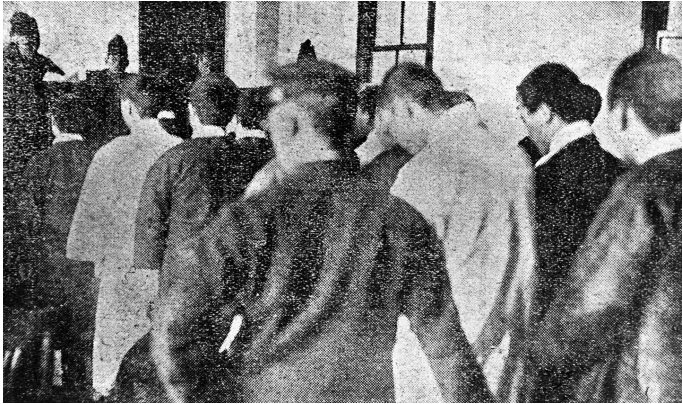
### 일제의 운동탄압이 오히려 기폭제가 되다

신간회 광주지회의 상무간사였던 장석천은 11월 16일 서울로 올라와 조병옥, 김병로 등 신간회 중앙간부들에게 제2차 시위의 전말을 보고하고, 이어 조선청년동맹 중앙간부 곽양훈, 차재정 등에게 광주학생들의 항일시위를 전국 항일 시위 운동으로 확산할 것을 역설했다. 이 두 모임에서 서울 시내 각 학교에 이미 조직되어 있는 비밀독서회 조직을 통해 시위운동을 서울로 확산하기로 결정하였다. 장석천은 특별히 휘문고보 5년생이었던 후배 장홍염을 설득하여 장홍염이 서울시내의 주요 조선인학교들의 학생 운동가들과 접촉하였다.

11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준비기간을 거쳐 1929년 12월 3일 서울의 각 학교의 조선인 학생들에게는 광주학생들의 시위운동에 대한 전말과 독립운동에의 동참을 호소하는 격문이 모두 뿌려졌다. 일본 경찰의 예비검속으로 서울 지역의 조직 주동자들이 잡혀 갔지만, 드디어 12월 9일부터 서울지역 학교들의 항일시위가 시작되었다. 12월 9일에는 경신학교 학생 300여 명, 보성고보 학생 400여 명, 중앙고등보통학교 700여 명, 휘문고등보통학교 학생 400여 명, 협성실업학교 학생 150여 명이 시위에 참가하였다. 12월 9일 하루에만 1,200여 명의 시위학생들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후 12월 13일까지 서울지역에서만 1만 2000여 명의 학생이 시위, 동맹휴학에 참여하였고, 그중 1,400여 명이 체포되었다. 그중 서울 지역에서만 45명이 구속되고, 이 가운데 35명이 최종적으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당시 신간회는 이 광주학생 시위운동을 전국적 항일독립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12월 10일 권동진(3.1운동시 33인중 1인), 허헌, 동아일보사장 송진우, 조선일보 부사장 안재홍, 조병옥, 홍명희, 한용운, 주요한 등이 대책회의를 갖고, 12월 13일 광주학생사건 진상발표회를 갖고, 곧 바로 군중을 선동하여 시위 운동을 갖고, 지방지회에도 동일한 행동을 하도록 지시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일본경찰이 이를 탐지하고 12월 13일 아침 6시 신간회 주요간부 30여 명을 예비검속하여 서울의 진상발표회는 열리지 못했지만, 지방지회에 보내는 지시문은 이미 전달되어 이후 전국 각 지역에서 1930년 3월초까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항일시위 만세운동이 계속되었다. 이 학생독립운동은 만주지역의 한인 거주지역까지 확

## 이 달 의 독립 운동



▲ 연행된 학생들을 심문하는 일본군

대되었다. 참가학교 총수는 323개교였다.

### 1930년대 민족운동의 중심에 학생이 있었다

광주학생운동은 학생운동뿐만 아니라 전체 항일민족운동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전인 1929년 2월경만 하더라도 운동가들은 당시의 상황을

침체상태에 빠진 '퇴조기'로 파악하고 활동에 상당히 신중을 기했다. 그러나 1년 뒤인 1930년 봄에 가면 이러한 상황인식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 사회주의자들을 비롯하여 상당수의 운동가들이 당시 상황을 '혁명적 시기'로 인식했는데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바로 1929년 10월 시작된 세계대공황과 광주학생독립운동이었다. 말하자면 이들은 세계대공황을 자본주의 사회의 말기적 현상, 자본주의 몰락의 시초로 파악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광주학생운동을 3.1운동 이후 최대의 사건, 혁명의 불뿔개를 처음으로 열어 놓은 역사적 계기로 보았던 것이다. 이 시기 학생비밀결사는 1931년부터 193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결성되는데 1931년 일제의 만주침략을 전후한 반전.반제투쟁과 무관하지 않았다. 각 비밀결사들은 신문을 간행하거나 반전 격문을 살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학생운동으로 재판을 받거나 퇴학을 받은 학생들은 1930년대 초반부터 학생운동과 연관을 갖거나 직접 청년. 노동. 농민운동에 뛰어들어 민족운동의 각 부문에서 활약했다. 당시 광주·전남지역에서 시위운동을 주동한 인물들도 '전남노동협의회', '전남사회운동협의회' 등에서 활약했다.

광주학생운동은 3·1운동 이후 최대의 항일 민족투쟁이었다. 또한 소수의 자각된 학생층이 아니라 학생 대중의 항일운동이라는 점에서 한국독립운동사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학생들은 3·1운동과 6·10만세운동 때에도 시위행진을 벌였지만, 이때의 학생시위는 소수의 자각된 선구자로서 일반 대중을 끌어들이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광주학생운동에서 학생층은 동맹휴교 등을 통해 자신의 일상적인 삶의 문제를 바탕으로 학생 대중을 자각, 조직화시켰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학생층을 하나의 대중운동 역량으로 결집하여 민족운동의 대열에 합류하고, 나아가 이를 선도하였던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

※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의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 조선왕조의 정궁 경복궁을 가다



홍진영 | 건국대 사학과 대학원

늦게 마나 취직공부를 시작해 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9월 어느 날, 동연이에게 경복궁 답사에 참여하자는 연락이 왔다. 별다른 약속도 없고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임정사람들도 만나고 싶어 답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초가을이라 고궁 나들이하기에 안성맞춤인 날씨였다. 경복궁에서 만난 우리들은 아직 안 온 대원들을 기다리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20여분이 지났을까, 동완이를 마지막으로 다 모인 우리들은 본격적으로 경복궁답사를 시작하였다.

### 변해버린 경복궁

복원공사로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을 볼 수 없어 안타까웠다. 훗날 멋있게 복원된 광화문의 모습을 기대하며 아쉬움을 달랬다. 그리고 광화문 복원과 동시에 민초들이 사랑했던 해태(인)상을 원래 그 자리에 복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복궁의 첫 번째 안쪽문인 홍례문(또는 흥례문)을 통해 경복궁의 안으로 들어갔다. 홍례문 안으로 들어서면 근정전으로 가기위한 길목에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짐하라는 듯, 동-서로 금천을 놓이고 그 위에 염제교가 있다,

지금은 물이 말라버린 금천위에 염제교는 경복궁과 조선왕조의 영광과 멸망의 역사가 함께 지내며, 현재까지 쓸쓸히 버티어 지내온 듯, 물이 말라버린 금천과 함께 같이 한번 보듬어 주고 싶을 정도로 처량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염제교를 지나 금정문 안쪽으로 들어서니, 임금님이 살고 계신 곳이라는 상징체인 근정전이 나온다. 이곳에서 역대 왕들을 즉위식이나 국사에 중요한 행사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연초하례, 고급관리 임용식, 중국사신 영접도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지난 조선왕조의 정궁인 경복궁의 근

## 역사탐방

정전은 나라의 요체요, 상징체이다.

한 달 전 쯤 TV 다큐에서 일제강점기시대 우리나라 궁궐이 일제에 의해 파괴되는 모습을 방영했다. 경복궁 근정전에 일장기가 펼쳐진 모습을 비롯한 내용들이 과거 식민지로서의 조선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은 매우 안타깝고, 또한 일제의 만행에 분노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지난간 역사가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것은, 과거를 잊지 말고 우리의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국가의 잘못은 용서하되, 이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 확고한 자세로 계속 잘못을 지적해주며, 양국사이의 갈등을 풀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함을 잊지 말아야한다.

### 계속 되는 경복궁 답사

근정전에서 앞으로 나아가니, 제왕들이 실무 정사를 보는 곳인 사정전이 나온다. 사정전은 왕이 실질적인 실무정사를 보고 이에 대하여 신하들과 의견을 듣고 나누는 곳이다. 근정전과 달리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한다는 점 외에 다른 건물과 달리 난방(온돌) 장치가 없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리고 궁궐의 가운데 위치한 사정전 양 옆에는 난방(온돌) 장치가 있는 만춘전과 천주전이 나란히 있는데, 그곳은 왕과 신하의 긴밀한 실무 정사가 이루어지는 보완장치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구조는 왕의 실질적인 업무가 궁궐의 깊숙한 곳이 아닌 정 가운데의 위치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왕과 신하, 그리고 민(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의 정사가 개방적인 공간에서 개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거기서 앞으로 나아가니 왕과 왕비의 침전이자, 내명부의 주인인 왕비의 공간인 교태전이 나오는데 이 역시 난방인 온돌장치가 되어 있고, 교태전 외관은 앞면 9칸, 옆면 6칸으로 경복궁 150여 채 건물 중 가장 화려하게 치장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 보니, 각 방은 그리 넓은 것 같지 않아, 왕비로써는 겸소하게 살려는 예시를 든 것 같다.

교태전의 구석구석 내부를 다 본 우리들은 경복궁 안의 넓은 공간을 찾아 쉬려고 하였다. 그 길에 나있는 돌담은 복구한지 오래되지 않은 듯 햇빛에 반사되어 비추고 있었다.



### 경회루의 오후

우리는 경회루의 못 근처 벤치에서 잠시 쉬기로 했다. 경회루는 4계절 내내 봐도 지루하지 않다. 이 건축물이 국보로 지정되고, 또한 우리 최고의 화폐 단위인 일만 원권에 경회루가 실린 것은 이 건축물 자체가 높고 멋져서 아니라, 주위 자연과의 조화에서

이루어지는 은은한 아름다움을 잘 표현 하고 있기에 그리 된 것이라 생각한다. 벤치에 앉아 우리들은 오순도순 이야기도 나누고, 경회루의 초가을 경치를 만끽했다. 조선시대의 왕과 왕비의 휴식시간도 이랬을까? 하루 일과가 끝난 후, 이른 저녁 무렵, 조용하고 분위기가 있는 경회루 위에서 저 멀리 백성을 사는 곳을 바라보며,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는...

### 궁궐 복원의 이치와 어려움.

우리가 늘 우리의 궁궐에 갈 때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문제지만, 앞으로 복원 문제만큼은 꼭 해결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를 되찾는 문제로 인식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궁궐은 이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지난 일제의 파괴와 영욕아래 슬픈 역사를 지닌 궁궐이 아닌 500년 조선왕조의 영광과 번영의 상징으로 우리의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복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 계획이 차질 없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낼 수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복원의 문제는 일제에 의해 궁궐의 자취 자체가 없어지다시피 한 경복궁과 덕수궁의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특히 경복궁은 앞으로 저 멀리 내다보면, 효자동일대 주거지와 청와대까지 나가야 비로소 복원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현재 청와대의 위치상의 문제는 원래 일제 강점기 총독의 주거지였고, 해방 뒤에는 미군정 하지중장의 외세가 있었던 곳이라고 생각할 때, 이는 광복 60주년이 지난 오늘날 청산되어야 할 마땅한 건물이고 우리나라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이 있는 주소가 있어서 절대 안 될 자리이며, 우리의 경복궁이 복원되어 할 자리인 것이다.

앞으로 경복궁은 조선시대 정궁으로써, 그 의미와 가치가 존재하고, 국민들을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는 궁궐로써 나아가야 할 것이다. ☺

# 타국에서 만난 우리의 역사



홍용희 | 답사단 4기

배가 선착장에서 서서히 멀어진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답사단은 2008년 7월 20일 서울을 출발하여 속초에서 동춘호를 타고 러시아 자루비노 항으로 출발한다. 어렸을 적 설레는 소풍날 비가 오듯, 나에게 있어 중요한 날이지만 아침부터 비가 쏟아져 덕분에 심하게 흔들리는 배에서 40시간동안 머무른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배에 오래있는 동안 김호일 단장님과 반병률 교수님, 서흥관 박사님, 우리 조의 멘토이신 신명식 사장님께서 내가 몰랐던 임시정부의 역사와 러시아 한인 이주사와 러시아 내에서의 독립운동, 관동군 731부대 그리고 이번 답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등을 매우 유쾌하게

설명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기에 든든한 답사다. 러시아에서 치열했던 독립운동의 역사를 배우는 여정이기에 자못 비장한 답사이기도 하다.

## 러시아에 남겨둔 우리의 역사를 향해

3일째, 7월 22일 드디어 배가 자루비노 항에 정박한다. 풍랑에 배가 많이 흔들려 육지에 내려서도 몸은 적응을 못하고 어지럽다. 겨우 내 몸을 다잡고 조원들을 독려하며 러시아 입국장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처음 보는 러시아 풍경. 그러나 도시의 풍경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단지 문화와 모습의 차이일 뿐이다. 배에서 시간을 지체한 탓에 우리는 일정을 따라



분주히 움직인다.

첫 답사지는 크라스키노 전망대. 그곳에서 우리는 포세트만과 그 지역 한인 이주마을이었던 연추마을을 둘러본다. 그러나 이주 한인은 소련정부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해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낯선 곳에서 또다시 낯선 곳으로, 겨레의 흔과 말을 잃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무심하게 자라는 여름풀은 역사와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한다. 전망대에 이어 안중근 단지동맹비로 간다. 주위에 풀을 뜯고 있는 젓소와 둘러 흐르는 시냇물 그리고 허허로운 주변풍경, 아무도 찾지 않는 여기저기 이지러진 비석. 말 못할 쓸쓸함을 뒤로하고 다시 출발하여 일행은 이내 지신희마을 입구 부근으로 갔으나 일정에 밀려 대략적인 위치와 설명만 듣고 곧 다음 행선지로 출발한다.

포장과 비포장이 번갈아 깔린 왕복 2차선 도로를 지나 바라바시에서 멈춘다. 중국인 여행자, 러시아 여행자 그리고 우리. 지친 여행객이 머무르는 간이 휴게소이지만, 이곳은 유인석 장군이 13

도 의군을 편성한 유력 지역으로 우리 역사에서는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잠깐 휴식을 취하고 다시 출발해 밝은 저녁 우수리스크에 도착한다. 그리고 먼저 이상설 선생 유허지로 간다.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해 이국의 만리타향 러시아에서 독립운동에 몸 바친 이 분은 끝내 노력의 결실을 보지 못하고 1917년 3월 2일, 이곳에서 쓸쓸히 돌아가셨다. 하지만 조국을 위한 걱정과 죽어서라도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눈물 같은 마음은 아직도 수이푼 강 물결위로 흐르는 듯 보인다.

### 타국에서 만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다음으로 간 곳은 발해성터다. 이름만으로도 한국인의 가슴을 부풀리기에, 고구려와 쌍벽을 이루는 발해! 외성터에 올라가 멀리까지 뻗은 별판을 바라본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 무엇이 부풀어 오른다. 흙먼지에 말발굽 소리, 우리 조상들이 누볐을 이 땅의 드넓음에 가슴이 뚫는다. 수이푼 강은 발해 땅을 누빈 우리 조상들의 기개와 외침을 모

## 4기 답사 기행문 우수작



두 지켜보았을까? 괜히 강을 따라 달리며 외치고  
 뜬 충동에 빠진다. ‘나도 대한의 사람이다!’ 라고.  
 그러나 망상으로만 뻗어나간 외침을 접으며 우리  
 는 다시 우수리스크 시내로 이동한다.

임시정부 재무총장을 맡았던 최재형 선생의 가  
 택을 거쳐 고려족중앙총회를 개최했던 건물에 도  
 착한다. 대한국민회의회의 모체가 된 회의가 열렸던  
 곳으로 관련서적을 봐오며 중요 유적으로 생각한  
 곳이다. 그 때문인지 다른 곳보다 사진 찍기에 열  
 을 올린다. 조금 더 이동해 청구신보를 발행하였  
 던 건물 앞에 선다. 추풍4사의 원호인이 주축으로  
 한인활동을 펼쳤던 우수리스크. 곳곳에 남은 우리  
 민족의 흔적과 항일운동의 유적을 둘러보며 비로  
 소 역사가 지나간 자리 위에 내가 서 있고, 조상들  
 의 노고와 땀 위에 내가 생겨났음을 실감한다.

시내를 둘러보니 노을이 지고 있다. 시계를 보  
 니 10시가 넘는 시간, ‘해가지면 잠잔다.’는 우스  
 껏소리를 십분 공감하며 숙소인 동북아평화연대

게스트 하우스로 향했다. 늦은 시각이라 기대하지  
 도 않았던 저녁식사가 뜻밖에 진수성찬으로 우리  
 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에 돌아가서나 맛볼 수 있  
 을 거라 생각했던 마늘, 양파, 그리고 김치와 계란  
 말이. 만리타향에서의 한국적인 맛! 평소 소식하  
 는 나이지만 이 식사만큼은 정말 푸지게 먹는다.  
 게다가 남들은 못한 온수 샤워까지 5성 호텔 부럽  
 지 않은 밤이 깊어갔다.

### 뜻하지 않은 만남

7월 23일. 어느덧 4일째다. 버스에 올랐다. 여  
 독을 이기지 못하고 이내 잠이 들었다. 얼마나 시  
 간이 지났을까? 눈을 떠보니 어느새 블라디보스  
 토크에 도착해있다.

먼저 들른 곳은 신개척리에 있는 신한촌 기념탑  
 이다. 남·북·재외 동포를 상징하는 세 개의 돌  
 기둥인데, 우리에게 의미가 남다른 이 탑은 세우  
 는 데에도 또 세운 후에도 많은 고초를 겪고 있다

고 한다. 지금은 담장을 세우고 한 고려인께서 관심을 하고 있다.

맑은 하늘과 깨끗한 바다가 인상적인 금각만을 보는 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니 슬슬 배가 고프다. 점심시간 도착한 곳은 평양관이다. 김치찌개, 두부요리, 버섯요리 등등 음식을 보고 한국식당인 줄 알았다. 난 반가워 열심히 먹는다. 그런데 종업원인 줄 알았던 두 사람이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익숙한 노랫말이다. ‘아, 여기서 북한 동포를 만날 줄이야.’ 밥을 먹는 동안에도 그들에 대한 호기심을 누르지 못했다. 결국 나는 조심스레 그들에게 말을 건넸다. “어느 나라 분이신가요?” 여성은 잠깐은 당황하며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우회적으로 답변해준다. 이들은 블라디보스토크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몇몇 평양관을 두어 장사를 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이 제공하는 음식은 북한 음식이라 한다.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북한 음식. 시골에 가서 먹는 우리 어머니 음식과 그리 다를 바 없어 더욱 놀랍다. ‘발해 성터와 신한촌 기념탑 등이 러시아 땅에서 만난 우리의 과거라면, 남북으로 갈려 서로의 음식 맛을 새삼스럽게 한 지금의 식사는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다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시작과 끝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역. 출발 전 시간이 남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준 기관차와 시베리아 횡단열차 기념비 그리고 레닌동상 등 역

사 주위를 카메라에 담는다. 러시아 문화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역사 내부를 구경하자니 별 특징이 없는 우리나라 기차역이 새삼 아쉽다.

오후 4시쯤, 드디어 시베리아횡단열차를 탄다. 기묘한 위치에 있는 침대가 6인실 칸임을 알려준다. 해변을 지나서 펼쳐져 있는 수풀과 자작나무 숲. 비슷한 풍경이 계속된다. 그리고 저녁이 지날 때쯤엔 수풀로 우거진 습지에서 스멀스멀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서쪽하늘엔 새빨간 저녁노을이 진다. 먼 나라라고 생각했던 이곳에서 어렸을 적 고향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

7월 24일, 5일차다. 오전 9시경 도착한 곳은 우리 목적지인 하바로브스크다. 우수리스크와 다른 정치 집단이 활동한 도시, 버스를 타고 이동 중에 김유천 거리를 지난다. 이국땅에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이 붙은 거리. 임진왜란 때 왜군에 대항했던 김덕령 장군을 기리기 위해 광주에서는 충장로라는 이름 붙였듯이, 일본군에 대항하여 전사하신 김유천 선생을 기억하기 위해 러시아 인들은 김유천 거리를 지정하였다. 이곳에서 처음 들어보는 우리 조상이지만 이 나라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찾아간 곳은 조명희 선생이 살았던 집. 그러나 실제 조명희 선생과는 인연이 없는 장소인데 잘못 알려져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며 사람들의 왕래를 받고 있다고 한다. 어느 시점에서 역사의 실타래가 꼬였을까? 웬지 모를 부끄러움이 내 낯을 붉게 만든다.

이어 김 알렉산드라가 활동하던 사무실을 찾았

## 4기 답사 기행문 우수작

다. 원호인 출신으로 서민들을 위해 갖은 노력한 여성. 정말 된 인물이다. 그 분은 볼셰비키에 가담하여 조국이 없던 한인들을 위해 애쓰셨을 것이다. 반병률 교수님의 설명 후 이리저리 돌아보는 도중에 안타까움이 밀려온다. 러시아 오기 전에 봤던 책에는 김 알렉산드라의 얼굴 동판이 건물 벽에 있었는데 지금은 번지수만 덩그러니 있다. 곧 김호일 단장님의 동북항일연대 강의가 이어졌다. 러시아혁명 후 정치적 변화가 한인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과정도 단박에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단장님께서 강의하신 만주지역을 비롯한 관내지역과 소련 영토 내에서 일어났던 항일투쟁의 역사도 또한 쉽지 않다. 아직 공부에 많이 부족함을 느낀다.

## 이념 대립으로 얼룩진 그들의 역사

다음에 찾아간 곳은 스탈린 시대에 학살당한 사람을 추모하는 중앙공동묘지다. 러시아어가 새겨진 대리석, 죽은 자의 수많은 이름들. 소수민족을 지원하여 그들을 적화하려 했던 레닌과 다른 정책으로 러시아 중심 사회주의를 꿈꿨던 스탈린은 소수민족 지도자를 처형했다. 단지 일본인과 비슷하



다는 이유만으로 한인을 박해하고 강제로 옮겨버린 스탈린. 그 숙청기시에 많은 한인 지도자를 처형했고 살아남은 사람은 강제 이주시켰다. 그 중 홍범도 장군은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해 쓸쓸한 말년을 보냈다는 인터넷 뉴스 기사가 떠오른다. 역사는 참으로 무참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조금 더 이동하여 죽음의 골짜기의 백위파에 희생된 사람을 위한 비에서 반병률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다. 시베리아 내전과 시베리아 임시정부, 니항 사건, 체코군의 반란 등 러시아 혁명 후 급변하던 정치적 상황을 듣는다.

우리나라와 전혀 연관 없을 것 같던 하바로브스크에서조차 우리의 역사와 조상들을 배운다. 왜 이제껏 이 역사를 배우지 못했는지 생각해 본다.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과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에트연방에 협력하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한인(韓人)의 역사는 좌우 이념으로 움아매어져 우리는 배우지 못했다. 우리와 다른 이념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렇듯 많은 독립투사들을 역사에서 지워버린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본다.

어느 덧 어둠이 깔린다. 앞으로 답사단은 3일간 시베리아 횡단열차로 이동해야 한다. 그래서 그 기간 씻지 못할 것을 대비해 모두 목욕탕을 다녀온다. 승차권과 여권번호가 없어 기차 출발 10분 전이 되도록 기차에 오르지 못하는 소동도 겪으며 기차에 오른다. 또다시 기차 여행이다.

다음날 아침. 벌써 7월 25일이다. 드넓은 평원과 자작나무들 그리고 따가운 햇살이 우리를 맞이한다. 아침에 간단한 스트레칭과 체조를 한 후 조



원들과 개인별로 조사해온 인물 발표도 한다. 날이 더워 힘들어지면 청하는 낮잠. 그리고 이번 답사의 결정체인 독립신문을 조별로 만든다. 우리 조 나름대로 아기자기하고 알아보기 쉽게 설명했다고 자부하며 내심 상을 기대했지만 심사자의 평가는 냉정해서 우리는 순위에 들지도 못했다. 김보성 단장님을 필두로 기차여행의 로망인 기타연주와 노래도 신나게 부른다. 이어서 우리조의 멘토 신명식 사장님, 김보성 단장님과 대화는 유익했다. 그러나 불편한 잠자리, 거친 끼니, 용변의 웅색함. 특히 씻지 못하는 괴로움! 그렇게 3일을 보내기는 쉽지 않았지만 다들 무리 없이 씩씩한 3일을 보내고 7월 27일 아침 마지막 행선지인 이르쿠츠크에 이른다.

그토록 아름답다는 바이칼 호 일출을 기대했으나, 날씨가 좋지 않아 바이칼 호에서 일출은 보지 못했다. 그 대신 알렉산드르3세 동상이 있는 앙가라 강가 주변의 유적지를 돌아보는 것으로 갈음했다. 이곳은 성명회 지도자 13명의 유배지였고, 자유시 참변 후에 이루어진 대한의용군 지도부에 대한 재판 장소였다. 안타까운 설명을 듣고 우리는 다음 목적지로 옮긴다. 이번에는 스파스까야 껌로 꼬비인 전통이 있는 그리스 정교회 사원에 벽화를 보고 근처 주청사 건물 뒤 영원의 불꽃을 본다. 2차 세계대전 때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조형한 것으로 한쪽에 우리나라 사람을 추모하는 석판도 있다.

다음 이동한 곳은 빨치산 기념비이다. 붉은 깃발을 흔들고 있는 기념비 옆에 갈란다라쉬빌리 묘



비가 있다. 또 다시 시작한 반병률 교수님의 어려운 강의. 백위파와 적군, 빨치산과의 치열한 전투와 시베리아 내전 시기에 출정국가와 그들의 노선, 그리고 어렸을 적 학교에서 막연하게 앞뒤 다자른 자유시 참변대신에 제대로 된 자유시 참변을 이야기하신다.

### 복잡했던 정세와 '자유시 참변'

이는 원호인을 주축으로 한 세력으로 한 이르쿠츠크 공산주의 진영과 망명자 부류와 여호인이 지지한 상해파 공산주의 진영이 체질적으로 맞지 않았고, 레닌 정권이 소수민족을 위해 지원을 하였지만, 극동공화국내이 시베리아내전 때 일제와 타협하기 위해 한인을 실질적으로 그들의 지휘 아래로 통제하려 한 정책이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일제와 대항하기 위해 온 같은 목적을 갖고 모였던 사람들이 왜 서로 싸워야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그 후 레닌정권은 자유시 참변 후 한인을 5군단 중 합동민족군대로 편성하였다.

버스가 사람들을 태우고 즈나멘스키 수도원으로 간다. 수도원 앞에 모여 꼴차크 장군 동상 앞에서 교수님의 설명을 듣는다. 볼셰비키를 배척하고

## 4기 답사 기행문 우수작

“

독립운동을 했던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독립운동을 했던 사실 자체가 소중한 것이다.  
좌우로 편 가르는 역사가 아니라  
더 넓게 아우를 수 있는 역사 인식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

백위파를 지도한 꼴차크를 지지했던 한인을 생각하면서 일제가 백위파를 지원하던 때에 그 한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본다.

**역사는 차별의 대상이 아니다**

벌써 7월 28일. 러시아에서 마지막 날이다. 아침에 일어나 숙소주변에 양가라 강으로 간다. 이른 아침부터 보는 자연. 언제든지 봐도 질리지 않은 것만 같다. 오전 첫 일정은 딸지 박물관이다. 바이칼 호에 살던 부랴트족의 역사와 건축, 신앙 등 그들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기회다.

이제 많은 사람이 고대하던 바이칼 호 유람시간이 왔다. 끝없는 수평선과 맑은 하늘, 어우러진 산등성이 그리고 한 척의 배. 자연 속에 인간이 들어가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

올 것 같지 않았던 마지막 날 마지막 일정이 오고야 말았다. 모든 조들이 준비했던 조가와 조구호, 장기자랑 등을 보고 이번 답사를 마무리하는 행사를 갖는다.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서로의 모습을 아로새긴다. 서서히 밀려오는 아쉬움. 우리가 함께 겪고 공유했던 9일이 파노라마처럼 내 눈앞을 지나간다. 순간 나는 공항에 와있다. 그리고 비행기는 우리의 고국으로

출발한다. 눈을 감고 내가 배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우리역사 속 러시아에 대해 생각하면 공산주의와 국사교과서에 몇 줄 나오는, 우리역사에 있어 그다지 대수롭지 않은 부분이 서술된 그런 곳이었다. 이번 답사는 남들이 말하는 평가를 그대로 믿게 되어 편견에 휩싸여 대상을 대하는 자세의 틀을 산산이 부수고, 나만의 틀을 정립하는 계기를 주었다. 좀 더 말해 보면 임진왜란 때에는 승병과 의병이 있었다면 일제침략기엔 민중과 임시정부, 그리고 러시아와 만주, 관내 지역에서 활동한 항일부대가 있었다. 조선은 유교와 지배층을 위한 국가였지만 임진왜란 때 지배층의 왜군격퇴뿐만 아니라 왜군에 항쟁했던 승병과 의병들도 정당한 평가를 하여 학교교육을 하지만, 일제와 싸웠던 모든 사람 중에 단지 사회주의 성향을 갖았다는 이유만으로 평가 절하하여 학교교육에서 이들을 배제하고 있다. 기실 역사를 차별하는 셈이다. 독립운동을 했던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독립운동을 했던 사실 자체가 소중한 것이다. 좌우로 편 가르는 역사가 아니라 더 넓게 아우를 수 있는 역사 인식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G)

# 조상이 애국해서 후손은 고생하는 사회

유인경 | 경향신문 선임기자

무사히 대학교육도 받고 직장도 있는 윤주경씨는 독립유공자 가족 가운데 축복받은 경우다. 2008년 8월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는 223명, 유족은 6283명이다. 이 가운데 직업이 없는 사람이 무려 60%를 넘고 고정수입이 있는 봉급생활자는 겨우 10% 정도이다. 유족 가운데 중병을 앓는 사람이 두 집에 한 집 꼴, 중졸 이하의 학력이 55%다. 이 가운데 유족등록증을 갖고도 보상금을 받지 못한 채 생계대책도 없는 유족이 1114명, 극빈층에 속하는 유족에게만 제공되는 생계지원비 월 25만원이 유일한 국가의 은덕이다.

## 독립유공자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

일신과 가문의 행복을 뒤로 하고 항일투쟁의 길로 들어선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뿔뿔이 흩어지고 가산을 빼앗겨 집안이 몰락했다.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 오로지 조국 광복에 대한 열정과 신념으로 전 재산을 독립자금으로 쏟아 부어 가족에게 남겨진 것은 가난과 멸시뿐이다. 독립운동을 한 집안이란 자부심이 한 끼의 식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현실이어서 당연히 학교 교육은 신경도 쓰지 못했다. 독립유공자인 아버지의 이름조차 한글로 쓰지 못하는 무학의 유가족들도 많다. 가난은 대물림되고 병마도 선물처럼 따라 온다. 자신은 유복하게 자랐거나 재력이 있고 고등교육까지 받았어도 독립운동 하느라 하얼빈, 상하이 등을 누비다보면 아이들은 양가집 자손임에도 녀마주이, 좌관행상 등으로 목숨을 연명할 수밖에 없다. 독립유공

자 후손 가운데 가장 흔한 직업이 '경비'다. 고단한 직업을 전전하다 나이 들어 겨우 얻은 경비업무 종사자가 가장 많다. 왜 우리 할아버지는 친일해서 돈을 모으거나, 이승만정부에 충성해 자리를 얻지 못할까하고 조상과 조국을 원망하다가 다른 나라로 떠난 유가족들도 많다. 민족문제연구소가 2005년 전국의 독립유공자 후손 5154명의 4.4%인 225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경제·생활수준

이 ‘하층에 속한다.’는 응답자가 59.4%(133명)나 되었다. 반면 ‘중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이는 40.1%(90명), ‘상층에 속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명뿐이었다. 결국 자신의 생활·경제수준이 ‘중·하층에 속한다.’는 응답이 99% 이상이다. 국가보훈처는 같은 해에 밝힌 자료를 통해 후손 5154명 가운데 상층 1140명, 중층 2353명, 하층 1605명, 생계곤란층 56명으로 분류했다. 비율상 분포는 상층 22%, 중층 45%, 하층 32%, 생계곤란층 2%이다. 실제 독립유공자들이 느끼는 생활수준은 국가보훈처 판단과 거리가 아주 멀다. 물론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지원방식에 허점이 많고, 후손의 상당수가 국가의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해 최대 손자녀(3대)까지만 보상 및 예우를 한다. 45년 8월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는 자녀(2대)까

지만 보상을 받는다. 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유족 1명으로 한정돼 있다. 선순위 유족(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손자녀)이 사망할 때까지 2남, 3남, 딸 등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다. 국가보훈처로부터 유족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유족들의 경우 실태조사도 돼 있지 않다. 정부가 지원을 검토하려 해도 기초자료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독립유공자 가족 가운데 가장 명문가이며 사회적으로 대우받은 유족은 백범 김구 선생의 후손들이다. 둘째아들 김신씨는 공군참모총장·교통부 장관을, 그의 장남 진씨는 주택공사 사장을 지냈다. 차남 양씨는 상하이 총영사를 거쳐 현재 국가보훈처장, 3남 휘씨는 광고대행사 대표이며 외동딸 미씨는 빙그레 김호연 회장의 부인이다.

###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은 ‘진실’이다

그러나 백범 선생과 비슷한 시기에 독립운동을 한 분들의 유가족은 너무나 대조적이다.

36년 휘순감옥에서 서거한 단재 신채호 선생의 아들 수범씨는 광복 후에 오히려 고통을 겪었다. 신채호 선생이 임시정부 초기에 이승만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신변의 위협까지 받아녕마주이, 부두노동자로 떠돌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후 은행에 취직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신채호 선생은 일제가 만든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고 신고를 거부하고 망명길에 올라 아직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무국적자 신분이다. 신채호 선생 명의의 땅과 집도 호적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해 그의 자손들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자부심을 갖는 것은 사치”라고 원망어린 말을 한다. 상하이 임시정부 외무장관을 역임한 장병준 선생은 천석꾼 재산을 모두 독립운동자금으로 헌납하고 임시정부 일에만 몰두해 자식교육은 신경도 쓰지 못했다. 그의 장남 경식씨는 물론 손자 하정씨도 제대로 배우지 못해 변변한 직업도 못가진 채 65세인 지금 스리랑카 출신 근로자인 양아들의 도움을 받으며

“

친일파 재산문제도 그렇고, 좌와 우도 그렇고, 이제 서로가 미워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공과 과도 치우치지 않게 따져야겠지요. 독립유공자 가족들은 국가에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존경받거나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교육만이라도 국가가 책임져주었으면 합니다. 적어도 조상이 애국해서 후손이 고생한다는 원망은 하지 않겠어요.

”

산다. 전 재산은 물론 목숨까지 바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에게 우리 국가와 국민들이 보여주는 도움은 빈약하다 못해 부끄러울 정도이다. 충분한 경제적 보상과 함께 유공자들과 그 유족들을 최대한으로 예우하는 보훈정책을 시행하는 프랑스는 전국 각지의 거리·광장 등에 레지스탕스들의 이름을 붙여 유공자를 기념하는 등 그들의 사회적 예우에 힘쓰며 유족에게는 연금 지급뿐 아니라, 기업체 의무고용 규정을 마련해 취업을 보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보훈업무를 담당하는 보훈부의 직원 숫자가 연방정부의 14개부서 중 국방부에 이어 2번째로 많고 예산 규모는 586억 달러(약 55조원, 2001년 기준)로 전체 예산의 2.7%를 차지한다. 정부 예산의 1.65%인 우리의 국가보훈처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독

립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더욱 서글프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을 향한 왜곡된 시선들이다. 해마다 광복절 행사 등에 광복회 회원, 독립유공자 가족들을 초대해 고작 엑스트라 노릇만 시킨다. 아직 발굴되지 않은 독립유공자 자료 수집에는 관심도 없고 가족들이 준비한 자료는 ‘전문가 부족’ 등을 내세워 해결해주지도 않는다. 한 독립운동가의 가족은 “국가보훈처 직원들조차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불쌍해서 도와주는 사람쯤으로 생각한다.”며 “각종 문의를 할 때마다 내가 구걸하는 느낌이 든다.”고 불쾌해했다. 더더욱 유공자 가족을 분노케하는 것은 “대체 조상 한 명이 독립운동을 했다고 몇 대가 울귀 먹을 거냐”고 주장하는 이들의 그릇된 시각이다. 게다가 유명한 독립유공자를 이용해 자신의 경력을

돋보이게 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이나 사업기금을 노리는 이들이 기념사업회, 송모회 등 각종 단체를 만들어 유가족들을 두 번 울린다.

### 국가유공자, 그들이 원하는 것

지난 정부에서 국가보훈위원회를 열어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환수한 재산을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지원하겠다고 밝혀 올 해까지 전반적인 보훈보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긴 하다. 빈약한 정부예산을 대신해 친일파들에게 환수한 돈으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장학금 지원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주경씨는 이렇게 말했다. “친일파 재산문제도 그렇고, 좌와 우도 그렇고, 이제 서로가 미워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공과 과도 치우치지 않게 따져야겠지요. 독립유공자 가족들은 국

가에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 거든요. 존경받거나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교육만이라도 국가가 책임져주었으면 합니다. 적어도 조상이 애국해서 후손이 고생한다는 원망은 하지 않게요.” 일본에 충성하고 시대가 바뀌어 친미파로 변신한 이들의 후손에게 부와 명예가, 우직하게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후손에게는 가난과 질병만 물려진다면 누가 애국애족을 할까. 숭고하고 고결한 애국정신을 가진 이들의 후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나라, 심지어 그들을 이용하려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 조상이 친일하여 후손은 고상하게 사는 사회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그리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김병만 전 동아일보 회장,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현재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이 유명인사들은 조상이 친일파란 공통점도 갖고 있다.두산그룹의

모태인 '박승직 상점'의 설립자 박승직씨는 경성 상업계에서 절대적 지위를 누렸고, 홍석현 회장과 이건희 전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삼성리움미술관장의 아버지는 일제시대 판사를 지낸 홍진기씨,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증조부는 일어상용운동을 주장한 계초 방응모씨로 모두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있다. 이밖에도 김상협 전 고려대 총장, 역사학자 이병도 박사, 민복기 전 대법원장, 최돈용 전 의원 등 우리가 기억하는 명사들이 모두 일제시대 중의원 참의 이상을 지낸 골수 친일파들의 후손들이다.

이들보다 더 노골적이고 적극적인 친일파들, 즉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와 은사금, 은사 토지를 하사받은 이들의 후손도 물려받은 땅으로 땀땀거리며 살고 있다. 이완용과 송병준 등 대표적인 친일파 11명이 소유한 토지만 무려 440만평, 돈으로 따지면 수십조 원에 이른다. 이완용의 경우 경기 김포·용인 등에 106만평, 송병준의 경우 경기 고양시 등에 여의도 면적의

2배인 162만평을 보유했다.

### 친일파의 후손이 사는 법

이완용의 증손인 이윤행씨는 1980년부터 이완용 땅 찾기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이미 수십억 원을 받았다. 송병준의 종손 송돈호씨 역시 90년 중반부터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있는 송병준 명의의 토지상속 소송을 주도하며 각종 사기사건을 일으키다 2007년 구속됐다.올해 초 보석으로 풀려났다.올해 광복절 특집으로 독립유공자 유족과 친일파 유족의 삶을 추적한 기사를 다룬 시사주간지 '시사IN'의 취재팀은 “친일파 후손은 선대가 만들어준 ‘요람’에서 근대적 교육기회를 충분히 누리거나 유산 상속 등으로 출발부터가 남달랐다”며 “그들은 대부분 사회 각계에서 엄청난 기득권을 누리며 땀땀거리고 살아 조상의 과거를 부끄러워 하지는커녕 ‘친일파 할아버지, 감사합니다.’란 말이 절로 나올 지경”이라고 소개했다. 

※ 경향신문  
8월 28일자에 실린 내용입니다.

## ◆ 금융노조, 독립유공자 후손에 후원금 전달

추석을 며칠 앞둔 9월 8일 금융노조가 본회를 찾아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우리나라 독립을 앞당기는 데 일조를 하고도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와 사회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공감한 자리였다.

금융노조 김길영 대외협력부위원장은 전달식에서 “독립운동을 하고도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후손들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금융노

동자들이 작은 뜻을 모은 것”이라며 상하이 임시정부 외무부장관을 지낸 장병준 선생의 손자 하정(65)씨 등 7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에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친일파 후손들은 여전히 잘 살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되레 어렵게 살고 있다”며 안타까운 현실을 토로했다. 장하정씨는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나 역사 민주화를 위해 싸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렇게 살았다는 것



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금융노조에서 연락이 왔을 땐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다”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조영빈 | 학생 편집위원〉

## ◆ 독립정신 소운동회



지난 10월 4일(토)에 제1회 독립정신 소운동회가 열렸다. 독립정신 3,4기 단원 10여 명이 참여한 운동

회의 테마는 ‘어울림’이었다. 어울림 장소는 신촌에 위치한 볼링장이었다. 두 팀으로 나눠 진행된 팀대항전에서 A팀이 2:0으로 완승했다. MVP는 첫 번째 게임에서 개인성적 최하위에 머물렀다가 두 번째 게임에서 1위를 한 B팀의 4기 이충언 군에게 돌아갔다. 단원들의 독특한 포즈와 치열한 심리전으로 경기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게임에서 패한 B팀은 A팀에게 인근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대접했다. 식사 후 번외경기로 연대에서 간단히 농구 게임을 즐기고 신촌의 호프집에서 뒤풀이를 했다. 운동회를 기획한 홍용희 4기 총무는 “첫 행사라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정한 어울림의 시간이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

〈정승임 | 학생 편집위원〉

## ◆ 김자동 회장 ‘평화를 말하다’



지난 10월 1일 저녁 7시 30분에 평화박물관 평화공간에서 본회 김자동 회장과 평화박물관 회원 간의 대화모임이 있었다.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대화모임 ‘사람이 사람에게’는 사회 각 분야

의 사회원로들을 모시고 대화의 시간을 갖는 자리다. 첫 대화모임에 초대된 김자동 회장은 ‘평화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2시간 넘게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사회는 <대한민국史>로 잘 알려진 한홍구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상임이사가 맡았다. 건국절 이야기로 시작해 민족 이야기로 끝을 맺은 대화에서 김자동 회장의 할아버지 동농 김가진 선생을 비롯해 모친이자 독립투사였던 정정화 여사 등 3대가 독립운

동가인 그의 가족사를 통해 김자동 회장의 남다른 독립정신과 평화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참가자 김숙임 씨는 “보통 독립운동가들이 현재 평화운동의 맥을 읽어내는 경우를 볼 수 없었는데 김자동 선생님과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에 대한 남다른 통찰력을 읽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자동 회장은 “평화를 생각하시는 분들과 대화할 수 있어 즐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승임 | 학생 편집위원〉

## ◆ 청사 조성환 선생 서거 60주기 추모식



신민회에 몸담으며 구국운동을 전개하고, 임시정부 요직을 역임하며 광복군 창설의 기반을 마련한 청사(淸菴) 조성환(1875.7~1948.10) 선생의 60주기 추모식이 지난 10

월 7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 서 열렸다.

이 날 추모식에는 김 양 국가보훈처장, 김영일 광복회장, 본회 김자동 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력보고, 추도사, 유족대표의 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추도식 후에는 ‘독립군 기르고 광복군 만든 군사 전문가 임시정부 군무부장 청사 조성환’이라는 주제로 학술강연이 이어졌다.

청사 조성환 선생은 1906년 안창호 등과 더불어 신민회를 조직해 구국운동을 전개했고, 1932년 국무위원으로 활동한 이후 군무부장, 군사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광복군 창설의 기틀을 다졌다. 광복 이후에도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다 1948년 10월 서거했다. 정부는 선생을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한 바 있다.

〈조영빈 | 학생 편집위원〉





임정서가

## 『학 병』

‘학병(學兵)’은 학생 신분으로 군대에 들어간 병사, 또는 그 군대를 가리킨다. 소설이라기 보다는 저자의 생생한 증언을 통한 수기라 하겠다.

이제 거의 반세기 전의 일에 관한 수기를 쓰고 있는데, 이 에피소드들은 내가 체험한 일이고, 조금도 없었던 일을 조작하거나 지어낸 것은 없다. 다만 인명, 지명, 부대명들은 잊은 것도 있고, 또 여러가지 이유로 가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도 있다. 그 밖에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조작한 것이 있으면 수기가 아니고 픽션에 지나지 않을 소설에 불과할 것이니까 남겨둘 만한 가치가 없다. 극히 일부나마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을 핍박한 역사의 일편을 남기고 싶지, 소설을 남기고 싶지는 않다. 그런 뜻에서 이 책이 조금이라도 역사적 가치가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 기쁘지도 않은 추억의 수기는 1944년부터 1948년 여름까지를 썼다. 내가 죽기 전에 나의 기이한 경험을 남겨 고국의 여러분에게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식민지화했을 때에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싶은 것이다. 참고로 일본군에 갔다 온 조선학병은 한 2,000명쯤 된다는데, 한국에서는 학병을 사람들이 다 잊은 것 같다. ☹



### ◆ 창립 4주년 기념식 및 정기 총회 개최

회원여러분과 그 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를 도와주신 여러분을 모시고 창립 4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를 갖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8년 11월 7일(금) 오후 4시
- 장소 : 서울역사박물관
- 행사장 안내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7, 8번 출구 / 연락처 02) 724-0114  
식후 조출한 저녁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 여러분이 후원해 주세요 -

본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킴으로써, 민족정기와 독립사상, 평화통일과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창립하였습니다. 본 회의 설립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분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 회비납부안내 ◆

본회 활동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정기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회비납부는 CMS 자동납부와 은행이체 방법이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CMS 자동납부신청시 송금수수료 없이 처리됩니다.)

※ 회비납부 계좌번호 (예금주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국민은행 813001-04-010309

우리은행 1005-700-941931

신한은행 304-01-159862

※ 기념관건립 후원금 계좌번호 (예금주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국민은행 813001-04-015151

###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9월회비납부자 명단(9월 1일~30일) ◆

	9월		9월		9월
(사)유정조동호선생기념	10,000	백낙청	10,000	이항증	30,000
공성진	30,000	성인제약(주)	100,000	이호현	20,000
곽태원	30,000	빙인섭	30,000	이화순	30,000
김광재	5,000	송재웅	30,000	인순창	30,000
김갑재	120,000	심수진	30,000	장봉훈	30,000
김동현	10,000	심재권	30,000	장은기	20,000
김선군	10,000	안영찬	5,000	정만기	30,000
김영림	30,000	양기홍	30,000	정승임	5,000
김용덕	10,000	엄근학	10,000	정환기	10,000
김원규	10,000	엄기남	50,000	조기식	10,000
김원유	10,000	오승숙	10,000	조명숙	10,000
김위	20,000	오은주	20,000	조영빈	5,000
김위현	50,000	오정수	10,000	조용준	30,000
김자동	100,000	우상호	30,000	조용환	30,000
김정욱	40,000	윤경자	30,000	조인형	10,000
김중숙	10,000	윤한옥	10,000	조정훈	30,000
김진모	20,000	이규호	30,000	조회환	10,000
김진영	10,000	이병윤	10,000	주세영	30,000
김진현	30,000	이상준	200,000	주철기	30,000
김학근	10,000	이석희	100,000	채의진	10,000
김행식	100,000	이신재	30,000	최정식	10,000
남만우	30,000	이영춘	30,000	최인국	10,000
노시선	30,000	이영후	30,000	함세웅	30,000
노영택	80,000	이용규	10,000	허석현	5,000
노응래	30,000	이응국	5,000	홍순권	10,000
류시경	60,000	이정재	50,000	황용만	5,000
박두곤	10,000	이종락	30,000		
박석자	30,000	이지현	10,000		
박원표	50,000	이찬희	60,000		
박은봉	30,000	이창복	30,000	◆ 특별 기부금	
박창기	100,000	이학효	5,000	(주)오토오티오	6,000,000

## 지조와 변절의 상징-근대사의 두 거인

### 항일



### 신채호 (1880~1936)



대한제국 시기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논설위원으로 있으면서 일제의 한국침탈 야욕을 폭로하여 민족주의와 계몽사상을 고취했다. 국망 직후 안창호 등과 함께 신민회를 조직하고 1910년 중국을 거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벌였고, 1919년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이 되었다.

1923년 의열단장 김원봉의 요청으로 명문 〈조선혁명선언〉을 집필, 일제에 항거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

1920년대 꾸준히 진행한 민족사 연구의 결실을 묶어 《조선상고사》《조선상고문화사》《조선사연구초》를 발표했다.

1928년 북경에서 무정부주의자들의 모임인 '동방연맹대회'에 참여하여 선언문을 작성하였고, 폭탄 테러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활동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법정에서 10년형을 선고받고 여순감옥에서 복역하던 중 1936년 2월 뇌일혈로 순국하였다.

### 친일

### 최남선 (1890~19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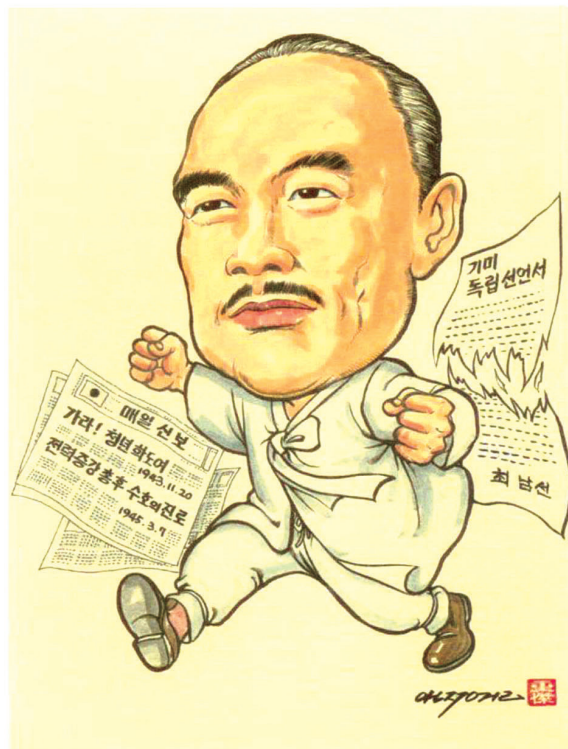


1907년 출판사 신문관(新文館)을 설립했고 이듬해 잡지 《소년》을 창간하여 신문학을 소개했다. 1919년 삼일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가출옥했다.

1928년부터 1943년까지 조선사편수회 위원으로서 일제의 역사왜곡과 식민사학 수립에 협력하였으며 1938년부터 2년간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 건국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친일 고위관리를 양성했다.

1941년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 문화위원을 시작으로 임전대책협의회 등 각종 친일단체의 주요 임원으로 참여했다. 징병·징용 동원과 국방헌금 헌납을 선전하는 시국강연과 좌담회에 단골 강사로 참여하였고, 〈보람 있게 죽자〉 등 많은 친일논설을 발표하였다.

하늘이 준 재능을 민족 반역의 길에 내다버린 안타까운 지식인이다.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힘으로 지금, 세상의 전쟁을 끝낼 수도  
지구온난화를 끝낼 수도, 인류의 가난을 끝낼 수도 없지만  
4교시만 끝나면 홀로 교실을 빠져나오는  
선재의 배고픈 점심시간은 끝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

\*\*1004+ **SEND**

사람을 향합니다

SK텔레콤의 [1004♥사랑나눔]은  
모바일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후원할 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1004+SEND / 통화료 무료)

**SK** telecom